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3년 7월호

접촉

이미지/텍스트

큰 범주에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현대미술 작품은, 전시는, 그리고 비엔날레는 이미 저마다의 '지도 그리기'를 하고 있다. 근 몇 년 사이 여러 전시장에서 우리는 근대를 정의하는 새로운 언어, 인간 문명과 생태의 관계성, 비가시적인 영역이나 존재를 매개하는 현상, 미래의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전근대의 관점과 같은 주제를 공통적으로 발견해 왔다. 태생적으로 '글로벌'한 맥락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비엔날레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장 방대하면서도 첨예하게 살피볼 수 있는 공동의 '지도'가 된다. 영어로 '매핑'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동시대의 사회, 철학, 정치적인 여러 상황과 동기화되며 세상을 읽는 또 다른 방식을 열어준다. 매핑을 통해 동시대의 동기화를 진행 중인 세계 유수의 작품, 전시와 비엔날레의 결에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smb12)는 '지도 그리기'라는 그 본연의 성질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지도 그 자체보다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매핑'하는지로 이어지는 화두의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도이다" 라고 말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제목인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도는 그것이 안내하고자 하는 여러 정보를 압축한 일련의 기호로 이루어진 이미지/텍스트이다. 지리적이고 역사-정치적인 경계, 일정 비율로 축소한 땅의 크기와 소유를 명시하고, 핏줄처럼 이어지는 강줄기와 바다의 흐름을 한 눈에 바라보며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 그 특정 공간에 동기화가 된다. 미술 작품 일반도 어떤 면에서 이러한 지도 읽기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작품 혹은 전시가 제시하는 특정 요소들을 작가-저자-기획자의 '기호'로 읽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표상 간의 관계로 경험을 파생하는 이 작품들은 그것이 결합되고, 합성되고, 교차하거나, 때로 단절되면서 드러나는 작동의 방식에 핵심이 있다. 작품의 플로우를 따라 우리는 그/녀가 생산하는 특정 공간에 동기화가 되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읽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점은, 순간의 즐거움, 그러니까 잠깐 예술이 나의 것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의 경험이 어떻게 일상으로 이어지고, 사회와 닿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일 테다. 미술은, 전시장 밖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니, 드러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미술의 '지도 그리기'는 세상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SMB12의 엽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소현 디자이너는 3개 열에 9 종류의 땅 모양이 배치된 일종의 시퀀스를 그리는 이미지를 보내주었다. 시퀀스는 울퉁불퉁한 경계를 가진 독특한 형상이었던 땅 모양이 점점 길쭉해지면서, 뺨치거나 들어가는 굴곡이 생겨나더니, 중국에는 어떤 이의 눈에는 아주 익숙한 한반도 형태를 드러내는 차례로 전개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엔날레의 서브 주제인 '디아스포라'와 관계한 역사를 떠올릴 수 있고, 영토적이지 않은 지도 그리기의 반대로도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권이나 신분증이 아니라, 한반도의 형태를 알아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저자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러한 상상의 서사는 조금 더 확장된다. 프랑스에서 자라나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 한국인 디자이너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여러 문화권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념이나 선가지관 보다는, 동류의 표현 세계에 즉각 반응하고 공감하는 '글로벌 MZ 세대'이다. 그런데 땅의 시퀀스 사이와 사이에 있는 텍스트는 이러한 서사의 감각에 찬 물을 끼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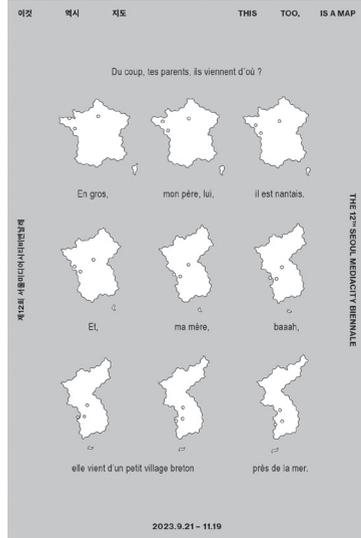
- 그럼, 너의 부모님은 어디서 오신거야?
-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낭트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 엄마, 뭐, 저기 브라타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오신 셈이지.

짧은 문답을 전달하는 이 텍스트에서 한 화자는 부모님의 고향을 질문하였고, 다른 화자는 한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프랑스의 지명을 알려준다. 이 대화에서 일컫는 부모님이 저자의 부모님을 지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어떤 시대적 변화나 흐름을 사건처럼 끌어들이나. 지리적인 배경이 특정 문화를 보장하지 않는 오늘날의 '지역성'에

권진

관한 개념도 슬며시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환경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 간에 예측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중국에는 관계없음을 드러내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긋나는 방식 자체는 결국 하나의 표상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주장도 없지만, 동시에 풍부한 가능성이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다. 이미지나 텍스트 그 어디에도 우선권은 없으며, 그 모두는 하나의 이미지-엽서-지도가 되어 온라인과 비엔날레 협력 공간을 통해 배포된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환에 본질을 가진 엽서는 어딘가에 가서 닿고자 하는 미디어의 시작점이 된다.

“이미지/텍스트의 몽타주가 너의 모든 시공간이라면, 그것들이 짜내는 유니버스가 독대하는 너의 본질적 시간, 사회적 관계 일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활동 문화적 주류, 손바닥 안의 역사, 네가 상상하는 모든 공간을 점거한다면, 그것이 네 학예의 실현 그 자체라면, 그때 과연 너는 너의 삶에 아무것도 않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모든 사물이 너에게 꿈이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다면, 더욱이 모든 것들이 꿈에 나타난 사자들처럼 여러 의미로 변모하는 허상과 허구일 뿐이라고 누군가 속삭이고 있다면.”
김현도, 「되살아나는 불꽃 하나를 향하여 - 최민이 남긴 이미지/텍스트 사이에서」, 『명량 학문, 유쾌한 지식, 즐거운 삶: 최민 컬렉션』, 서울시립미술관, 2023



침묵 속에서

비엔날레는 단순히 하나의 전시장에서 작품을 제시하는 단일한 형식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프로그램과 전시를 보여주는 공간은 늘 가변적이면서 유동적이다. 유튜브 플랫폼부터 길거리의 전광판, 대안 미술공간, 독립 서점까지, 모든 공간이 비엔날레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이름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제1회 ‘도시와 영상’부터 ‘미디어_시티 서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을 거쳐 현재의 이름이 되기까지, 이 역사에는 수많은 공간들이 함께했다. 비엔날레의 역사가 시작된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구 서울정도600년기념관, 2016년 철거되었다), 그리고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의 스크리닝 프로그램과 전시가 진행된 한국영상자료원,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들과 미술관 수장고 등이 그 공간들의 예이다.

2023년 9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의 전시 공간은 총 여섯 곳(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SeMA 벙커, 스페이스mm, 소공스페이스,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 달한다.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을 아울러 펼쳐지는 새로운 서울의 지도는 일상 생활 속의 예술을 가시화하면서 미술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장하고자 선정되었다.

그중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정동길을 따라 경희궁 옆으로 걸으면 만나게 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박물관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유물 기증 사업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고고학적인 ‘유물’을 넘어, 생활 물건, 공문서, 대중문화 관련 상품들까지 광범위한 ‘사물’들을 서울 시민들로부터 기증 받는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닌 정치, 문화, 사람의 역사를 포함하는 삶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은 대안적 지도를

그리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공간일 것이다.

놀랍게도 서울역사박물관이 비엔날레의 장소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_시티 서울 2000 《도시: 0과 1 사이》의 전시 프로젝트 〈이스케이프〉가 개최된 장소였고,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트러스트》의 여러 전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서울역사박물관 이었다. 뒷마당에 자리한 우물에 설치했던 김순기의 〈우물의 침묵〉(2010)이 해당 에디션의 참여 작품이다. 고요한 박물관 정원의 우물(이 우물은 현재는 복원된 것으로, 500년 전 경희궁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에서 새 소리, 바람 소리 등이 뒤섞여 흘러나오는 이 작품은, 이 사운드를 구성하는 스피커라는 장비는 물론, ‘소리’까지 미디어의 범주임을 여실히 제시한다.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는 김순기는 복잡하고 다각적인 서울의 공간 속에 침묵을 제공하는 사운드 작업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었다고 언급하며,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잡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제시 천의 작품을 선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를 거쳐 살아온 작가는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한 이방인의 경험을 추상 언어/이미지로 제시한다. 특히 읽을 수 있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들의 번역 가능성을 탐구한다. 명확한 언어가 없는/들리지 않는 침묵과 공허 속에서 읽을 수/들을 수 있는 존재들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십여 년 전 김순기 작가의 작품과도 공명하고 있다.

돌아오는 9월부터 다양한 서울의 장소 속에 추상적인 이미지와 불명확한 지시문들,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다시 한번 침묵과 고요, 그리고 잡음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이곳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탐험하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도 그리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시내



김순기, 〈우물의 침묵〉, 2010

사운드 설치, 가변크기

제6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서울 2010 《트러스트》 전시 전경

접촉면을 따라 읽기

미디어는 전시장에서 소개되는 작품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광판, 가로등 아래 양옆으로 펼쳐지는 기차, 미술관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 벽면으로 옮겨지는 지면과 화면, 관람자를 안내하는 여러 종류의 인쇄 매체 등 혼합적인 물체를 가지며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를 이산한다.

대안-지리적 관점에서 “초국가적 결속, 보이지 않는 헌신, 코드화된 데이터와 구조를 살피는” 열두 번째 비엔날레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접촉면을 담고 세워진다.

곳곳에 마련된 《이것 역시 지도》의 펼침면은 비엔날레라는 총체적인 경험의 일부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현실과 디지털 공간에서 이동을 거듭하는) 보행자의 발끝이 머무는 임시적 장소가 된다. 이들은 쫓겨버진 시각적 단서로서 각각의 공간에서 작동하며 한시적인 면적과 선별적으로 호환 가능한 언어를 통해 글과 이미지 데이터를 유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전선에서 이번 비엔날레의 운을 띄우는 두 가지 매체를 소개한다. 화면 속에서 비엔날레의 구조를 펼쳐내는 웹사이트와 이질적인 출처를 가진 글과 이미지가 모여든 엽서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는 방문자에게 화면 위 커서와 같이 민첩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지만 그만큼이나 클릭 한 번에 이탈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틈새가 도사리는 공간이다. 이번 비엔날레의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이라는 웹의 단순한 기능을 담백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내용에 따라 화면에 흐뜨러진 원형 기호들이 각각의 지리 정보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디자인 팀(배소현, 로라 리샤르, 플로리앙 프르마제)은 ‘지도 그리기’라는 수행적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움직임의 상상하며, 단수가 아닌 복수의 그래픽 기호로 이를 표현했다. 산발적인 원의 성위는 SMB12 웹사이트의 모든 화면에서 나타난다. 비엔날레가 이루어지는 여섯 곳의 전시 장소와 열네 곳의 협력 공간, 이외 서울 전역에 흩어진 열 곳의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을 의미하는 원의 무리들은 화면에 펼쳐진 글과 이미지의 맥락에 따라 지리적 좌표를 나타내는

그래픽 암호가 된다. 우측 상단에 나란히 위치한 두 개의 원 중 왼쪽 원은 그래픽 암호를 주변부로 흐트렸다가 다시 위치시키는 버튼이다. 비스듬히 놓인 나침반과 같이 보이는 오른쪽 원은 클릭 시, 비엔날레의 구조를 이루는 여러 펼침면을 쏟아내며 빠르게 사방을 가리킨다. 방문자는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화면 속 이동의 도구로서 활용하며 SMB12의 지형을 탐구해 볼 수 있다.

그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기록을 살펴보면 포스터, 초대장, 엽서, 스티커, 플라이어, 브로슈어 등의 인쇄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비엔날레의 접촉면을 다듬어왔는지 알 수 있다. 열거된 것과 같이 보다 가벼운 형식의 인쇄물은 가장 먼저 관객과 만나며 비엔날레를 소개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촉진하는 사전 매개체로서 작동해왔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초청장이자 기념품으로 제작되고 소비되어 온 엽서는 2014년 8회 비엔날레에서 소문의 근원지를 자처하며 비엔날레의 색다른 장소로서 제시되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는 사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작가 4인(김설비, 김영록, 노재운, 박창현)을 초대하여 네 장의 엽서를 제작 및 배포했다. 작가들의 인용구와 이미지가 담긴 엽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환경을 구천 삼아 떠돌며 소문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통로로서 기획되었다.

SMB12 엽서 프로그램은 ‘동시대 삶을 재해석하기’라는 명제 하에 작가, 필자, 참여자, 비엔날레 팀 구성원, 미술관 관계자 등 다양한 역할로 이번 비엔날레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엽서 생산자로 초대하여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엽서 판형(100 × 150 mm) 안에 수렴될 수 있는 시각물을 요청받는다. 드로잉, 사진, 인용문, 글, 콜라주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모여든 엽서들은 기여, 수집, 편집, 유통의 단계를 거쳐 공동의 지도를 형성한다. 각각의 해석이 담긴 이미지들의 수평적 접촉은 비엔날레를 표상하는 또 다른 접촉면을 생성해내며, 엽서를 건네는 손을 타고 증식한다. 이제 100일 남짓 남은 제12회

이미지

비엔날레의 자취를 남기며 2023년 6월부터 유통되고 있는 엽사-지도는 SMB12 협력 공간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비엔날레 웹사이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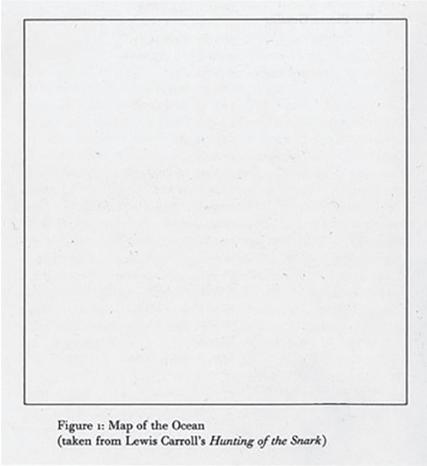


Figure 1: Map of the Ocean
(taken from Lewis Carroll's *Hunting of the Snark*)

〈바다 지도〉, 루이스 캐럴의 『스나크 사냥』(1876) 중에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엽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예술 감독 레이첼 레이크스가 초대자들에게 발송한 이미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
사전프로그램 ‘엽서’, 2013

김실비 Sylbee Kim © all rights reserved

예리하되 찌르지 않으며 솔직하되 멧대로 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 58장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최은주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글 권진, 박시내, 이미지
번역 이수진
영문감수 앤디 세인트 루이스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메일 소식 구독을
원하시면 아래 QR코드를 따라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제시 천, 〈오 더스트〉 스틸, 2022
3채널 비디오 설치, 3개의 거울. 7분 6초(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7월호 『접속』

이미지/텍스트

접속 속에서

접속면을 따라 읽기

제시 권, 〈오 더스트〉 스팀, 2022
3채널 비디오 설치, 3개의 거울, 7분 6초(비디오); 가변 크기(설치)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 CITY BIENNALE